



“광주·전남 대표은행 역할·책임 다할 것”

송중욱 광주은행장

“지역민·지역기업과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당연한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과 함께 전진해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7일 취임 5주년을 맞는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송 은행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행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은행장에 선임됐다. 행원부터 은행장에 오르기까지 그는 매년 괄목할만한 성적을 세우며 승승장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적표는 해마다 경신하고 있는 경영실적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인 당기순이익 1965억원 달성에 이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역

대 최대 실적인 1299억원을 달성했다. 국내 대표적인 브랜드 평가제도인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는 5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경제 동맥’을 자처해온 광주은행의 노력은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빛을 발했다.

광주은행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3대 주주로 참여하며 260억원을 출자했다. 이는 지역 기업으로서 최초로 출자에 참여를 선언한 사례로 꼽힌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전폭 지지한 결과 ‘캐스퍼’라는 걸출한 신차를 배출하며 결과를 인정받았다.

송 은행장은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는 광주은행이 지닌 경영이념이라며 “지역민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광주·전남 대표은행”이라는 브랜드를 가질 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지역 대표은행의 소명을 다하고자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

조를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 온 성과는 자치단체 금고 선정에서 입증됐다.

광주은행은 광주시 금고와 광주 광산·동·서·남·북구 5개 구 금고 전담은행을 맡아 이른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광양과 나주, 목포, 순천, 여수 등 전남 5개 시 금고를 모두 석권하며 지역사회에서 쌓은 신뢰를 증명했다.

송 은행장은 “지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은행이 자치단체 금고를 맡아야 한다”며 “지역 자금이 중소기업과 중저민 금융지원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은행의 존립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은행장은 행원 시절 탁월한 ‘영업맨’으로 불렸던 경험을 살려 스스로를 ‘송프로’라 부르며 후배 직원들과 소통에 열의를 보인다.



그는 “자행 출신으로서 광주은행에 갖는 애정은 남다르다”며 “훗날 직원들에게 ‘함께 일해서 행복했던 선배’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과 현장 일선에서 자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역 상생, 지역민 동행...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

오는 11월 창립 54주년을 맞는 광주은행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광주은행은 올 상반기 12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도 연간 당기순이익 1965억원을 나타내며 최대 실적을 냈다.

광주은행은 하반기에도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세웠다.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금리 상승기 도래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력 강화 전략 추진 ▲채널 최적화 전략과 비용 관리 기반의 경영 효율성 제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 통한 미래 수익기반 확대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이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을 통한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의 경영이념을 하반기 중점 추진전략의 근간으로 제안했다.

그는 “기준금리 급등과 금융의 디지털화, 침체한 경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디지털 사업의 성숙도를 높이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100년

송중욱 행장 취임 후 매년 최고 실적...수익성·건전성 갖춰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5년 연속 1위

당기순이익 10% 이상 사회 공헌 활동·지역사회 환원

은행으로 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와 상생하기 위해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에 대한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이 있다”며 “광주은행은 2022년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타이틀을 넘어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리딩뱅크로서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 실천으로 ‘ESG 경영’ 발돋움=광주은행은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현장 중심경영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왔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는 ‘금융위원회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에서 소형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광주은행이 기술력과 혁신성을 지닌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한 성과이다. 광주은행은 기술력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신용평가(TCB)에 따른 기술기반 투자에 힘써왔다.

금융감독원 선정 ‘2021년 관계형 금융 우수은행 중 소형그룹’ 1위와 금융위·금감원 선정 지역 재무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결과로 꼽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은행의 선순환 노력은 금융상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수익 일부를 해당 지역에 기부하는 ‘순천사랑통장’, ‘화순사랑통장’, ‘신안1004통장’, ‘평갈해남통장’ 등 지역사랑통장이 있다. 지난 2018년 출시한 ‘광주·전남에(愛)사랑카드’는 출시 이후 4년 동안 10억3000만원의 후원금이 마련되기도 했다.

‘넉이 에·적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오일 정신을 기억하고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출시한 통장이다. 판매 수익금 일부인 2000만원씩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부했다.

오는 11월 개점 3주년을 맞는 포용금융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동반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광주은행은 설립 초심을 되새기며 1968년 창립 당시 본점이 있었던 충장로 5가 자리에 지난 2019년 11월 포용금융센터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제도권 금융 지원 문턱을 넘지 못한 고객의 재기를 돕는 한편 경영 상담과 자산진단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포용금융 경영 컨설팅 지원 부문 우수상을 주기도 했다.

◇조직개편부터 앱 단장까지-디지털 강화 온 힘=광주은행은 올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으며 역량 기르기에 나섰다.

디지털본부를 디지털영업본부와 디지털전략부으로 분리하며 맞춤형 조직개편에 들어가기도 했다. 디지털영업본부 아래에 디지털사업부와 디지털금융센터, 디지털전략부 산하에 디지털채널부와 마이데이터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고객과 디지털 접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부문은 ‘손안의 금융 비서’라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집중하고 개인·기업스마트뱅킹을 전면 개편한 것이 대표적이다.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 하나로 다른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자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를 조회하고 신용정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존 기능에 ‘자동차 시세조회’, ‘건강관리’ 등 편의 기능을 더했다.

광주은행은 혁신금융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토스’와 인적 교류를 하며 금융정보기술(핀테크) 변화에 대응했다. 최근에는 100개 업무에 대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구현했고, 업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광주은행은 개인뱅킹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금융인증서 서비스를 최근 기업뱅킹에도 확대해 개인사업자와 법인고객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인증서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스마트뱅킹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해 앱 실행 처리속도를 기존보다 2~3배 높였다. 각종 공공문서를 발급받고 공유·보관·열람할 수 있는 ‘정부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광주은행은 대출비교플랫폼 쉐핀다,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최근 협약을 맺고 혁신금융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실적이나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전남 첫 10억 기부클럽-선한 영향력 전파=광주은행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환원 사업으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재)광주은행장학회 장학금 지원 등 장학사업이 있다. 광주은행장학회는 현재까지 4000여 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3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0억 클럽에 가입하며 기념패를 받았다.



광주은행 1700여 임직원들은 여름에는 어르신 삼계탕 배식 봉사, 겨울에는 연탄·김장 나눔 등을 꾸준히 펼치며 사회환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전남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0억 기부 클럽에 가입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전파하는 기업 문화를 세웠다.

“지역민과 고객이 있기에 지금의 광주은행이 있다”는 송중욱 은행장의 경영이념에 따라 광주은행이 지역과 공생에 두는 무게는 상당하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각종 자연재난이나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긴급구호물품을 담은 ‘사랑꾸러미’ ‘응원꾸러미’ 등을 직접 만들어 전하고 있다. 1700여 임직원들은 여름에는 어르신 삼계탕 배식 봉사, 겨울에는 연탄·김장 나눔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선호도를 받아 5년 연속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선정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에 뽑혔다. 최근에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I) 고객접점 부문에서 지방은행 1위를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